

## 서울지역 주민의 中醫 體質別 五色선호도와의 연관성

안지혜<sup>1,2\*</sup>

<sup>1</sup>이너가이드센터, <sup>2</sup>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자연치유학과

### Relations of Five Color Preference with Chinese Body Constitution of Residents in Seoul Area

Ji-Hye Ahn<sup>1,2\*</sup>

<sup>1</sup>Innerguide Center, 162-gil-52 Seonneung-ro, Seoul 06015, South Korea  
<sup>2</sup>Dept. of Naturopathy, Dongbang Culture Univ., Seoul 02838, South Korea

(Received February 17, 2020 / Revised February 20, 2020 / Accepted February 23, 2020)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examined the distribution of constitution(Con) types by examining the Chinese constitution table questionnaire with 594 Seoul citizens. It investigated the preferences of five colors by the Con. It then was to explore the validity of the test and the five colors according to the Con. **Methods:** We used the CC table questionnaire and surveyed by using a cardinal color. **Results:** The Con type distributions include yang-weak(31.4%), yin-weak, gall-humidity, harmony, qi-weak, qi-gloom, specific, and extravasate in order. The lack of statistical significance also indicates that the CC test is not appropriate for Seoul citizens. The order of five preferences is 31% in blue, 25.3% in yellow, 18% in white, 17.7% in red, and 8% in black. Blue was the most preferred and black the least.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distribution of five colors, but they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five viscera diseases of the yang-weak con, the stomach was more than half(50.3%). The highest preferred color was blue (30.9%). This difference was significant( $p < .01$ ). It evaluated that this influences the preference of five colors by five diseases. **Conclusions:** The constitution of Seoulitan in the CC survey distributed into nine categories. There was a difference in preference of five colors by the con. However, it was not significant. This indicates that the Chinese con table is not suitable for Seoulitan. However, the results are to be primary data for research in this field.

**Key words** Chinese constitution, Yang-weak constitution, Five color, Preference, Blue

**초록 목적:** 본 연구는 서울시민 594명을 대상으로 중의체질표 설문지로 검사하여 체질유형 분포를 탐색하고, 체질별로 오색(빨강색, 파랑색, 노랑색, 흰색 그리고 검정색)의 선호도를 조사하여 서울 시민들에게 적합한 검사인지 그리고 체질에 따른 오색의 선호도가 타당성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방법: 연구방법은 중의체질 설문지를 이용하였고 일반오색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결과:** 체질유형 분포에서는 양허체질(31.4%), 음허체질(23.8%), 담습열(11.8%), 화평(10.4%), 기허체질(9.8%), 기울체질(7.4%), 특이체질(6.2%), 어혈체질(3.2%) 순으로 나타났다.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이는 중의체질 검사가 서울 시민에 적합하지 않다는 결과이기도 하다. 오색선호도 순서는 파랑색이 184명(31%), 노랑색이 150명(25.3%), 흰색이 107명(18%), 빨강색이 105명(17.7%), 그리고 검정색이 48명(8%)의 순이었다. 파랑색을 제일 선호하였고, 검정색을 제일 낮게 선호하였다. 오색의 분포는 차이는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는 체질별 오색선호 사이에는 유연성이 적다는 결과이다. 양허체질 대상자의 오장질환 중에 위장질환자의 분포(50.3%)가 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 선호색은 전체적으로는 파랑색(30.9%)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었다( $p < .01$ ). 오장질환 별로 오색의 선호도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라 평가한다. **결론:** 중의체질 분포조사표로 조사한 서울 시민의 체질을 분포는 9개로 분류되었으며, 양허체질 대상자가 수가 가장 높았고, 습열체질이 낮았다. 또한 체질별로 오색의 선호도에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없었다. 이는 중의체질표가 서울시민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는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체질별 결과는 이 분야의 연구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고 판단한다.

**주제어** 중의체질, 양허체질, 오색, 선호도, 파랑색

## 서 론

색채의 연구는 Scarmiglioni(1601)가 ‘De Coloribus’를 발간하면서 체계화 되어 갔다. 이 책이 발간되면서 색채에 대한 미술 및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색채에 대해 새로운 개념이 싹트기 시작하였다(Verner-Bonds, 1993; Wills, 1997; Gage *et al.*, 2011). 또한 Newton(1666)이 빛이 분광되는 것이 밝힌 이후에는 과학적 및 미술적인 면에서 색채가 각각의 분야별로 분류되어지기 시작하였다(Newton, 1704). 또한 대상의 시각적 표준화가 완성되어 컬러를 기호화시켜 전달이 가능한 체계로 정리되어갔으며, 다시 ‘사용하는 수단’으로서 색을 이용하게 되었다(Korea Color Research Institute, 2007). 이러한 발전의 변화를 통하여 20세기 초기부터는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하는 치료적 가치로의 색채연구가 시작하게 되었다(Gardner, 2006). Babbit(1878)는 색채치료법 연구에서 색과 원소, 색과 광물 사이의 관계를 정립하여 전자색(electrical colors) 및 열색(thermal colors)으로 분류하였다. 현재도 Babbit의 색채요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각종 색채요법의 근간이 되어 있다(Birren, 1993).

Finsen은 빛과 색을 이용하여 환자를 치료하였다(Finsen, 1903; Park, 2012). 특정색채가 특정 신체기관에 영향을 미치어 치료효과가 있다는 임상적 자료를 제시하였다(Ghadiali, 1996). Lüscher(1969)는 1947년에 색채진단법을 개발하여 발표를 하였다. Braun & Bonta(1979)는 Luüscher의 8가지 컬러 자극 테스트 방법을 개발한 컬러진단테스트를 가지고 임상연구에 성공을 하였다. Ahn & Kim(2013)은 Lüscher컬러진단법은 2008년에 처음으로 한국에 정식적인 컬러진단 아카데미를 설립하였다. Granit *et al.*,(1967)은 사람의 눈 속에 있는 추상체는 장파장인 빨강, 중파장인 녹색, 단파장인 파랑의 세 가지 색을 감지하게 되어있다고 하였다. Birren(1993) 및 Kim(2005)은 사람은 적색, 녹색, 청색 이외의 색을 인식할 때는 감광 물질의 혼합으로 인식하며, 색에 대한 인식은 무의식중에 감지하고 있는 심리적 판단 기준에 의지한다고 하였다. Lee(2009)는 색채치료는 양자파동이론과 인체 경락이론을 접목한 것으로, 인체에서 미세하게 발생하는 파동과 색채의 파동의 공명을 이용하는 치유방법이라고 하였다.

인체의 체질에 대한 연구는 고대에 한국에서는 이제마(1972)로부터 시작한 사상체질의학이 독창적으로 발전하여 왔다(Kim, 1995; Shin, 2001). 사상체질의 연구와 발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체질의학의 기본이 되는 정확하고도 객관적인 체질분류 방법이 현재까지 확립하는 단계이다(Park, 2005; Ahn *et al.*, 2004).

중국에서는 고대의 체질론을 현대 의학적으로 일반인들의 체질을 분류하여 치료를 하고 있다(Wang, 2005). 중의학(中醫學)과 한의학(韓醫學)은 음양오행(陰陽五行)을 토대로 발전하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치료와 예방을 하는데 활용되는 체질 분석의 방법에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중의학의 체질 분류를 중의체질학이라 하고, 한의학의 체질 분

류를 사상의학이라 한다(Ko, 2009).

사상의학(四象醫學)은 유학자의 시각에서 의학을 바라본 것으로 인의예지(仁義禮智)와 희노애락(喜怒哀樂)의 사단(四端)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Lee, 1872), 중의 체질학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사상의학의 체질은 불변한다는 입장으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하나의 체질만을 갖고 태어나고, 후천적으로는 절대 변하지 않으며 약물 역시 체질에 맞는 약물을 선택하여 치료하여야 하며, 다른 체질의 약물을 혼용하면 안 된다는 불변의 법칙을 두고 있다(Ko, 2009). 그러나 중의체질학(中醫體質學)의 체질은 사상의학과 반대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데 비록 태어날 때 어떤 체질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체질은 후천적인 요소에 따라 가변 할 수 있으며 약물도 병증에 맞게 가감(加減)을 하는 입장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Ko, 2009).

사람마다 체질을 분류하여 체질에 맞는 치료를 한다는 방식은 동일하지만 체질을 분류하는 방식과 체질의 불변 여부에 대한 개념은 서로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Wang(2005)는 중의체질을 9가지의 체질로 분류하였다. 임상적 응용원칙에 따라 음양기혈진액(陰陽氣血津液)의 성쇠, 허실 변화 위주의 분류방법으로 9종 체질의 원칙에 따라 체질을 분류하였으며, 9종 체질의 분류는 화평체질(和平體質), 기허체질(氣虛體質), 양허체질(陽虛體質), 음허체질(陰虛體質), 담습체질(痰濕體質), 습열체질(濕熱體質), 어혈체질(瘀血體質), 기울체질(氣鬱體質), 특이체질(特異體質)로 되어있다. 그 후에 중의체질 분류와 판별의 설문지는 체질 보강으로 2009년 국가적 차원에서 만들어졌으며 통계학적으로 과학화 시킨 체질분류이다. 인구수에 따른 풍부한 임상 실험과 정확도가 높다. 체질자체가 너무나 광범위한 부분으로 처음에는 6가지 체질에서 여러 가지로 분류되었다가 9가지 체질로 최종 확정 선택되었다.

색채의 자극이 인체에 미세에너지에 영향을 주게 되었을 때 인체에 영향이 있다면 중추계가 지배하고 있는 온도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에서 시작한 실험이다. 즉 인체 체온조절시스템의 변화는 인체 에너지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장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로 본 연구를 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서울시민 594명을 대상으로 중의체질표 설문지로 검사하여 체질유형 분포를 탐색하고, 체질별로 오색(빨강색, 파랑색, 노랑색, 흰색 그리고 검정색)의 선호도를 조사하여 서울 시민들에게 적합한 검사인지 그리고 체질에 따른 오색의 선호도가 타당성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 재료 및 방법

###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12년 3월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59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 참가자는 20대부터 80대까지 남

자 218명, 여자 376명으로 남자는 36.7%, 여자는 63.3%로 본 설문에 참가 하였다. 설문에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에게는 설문의 성격이나 의도, 결과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설명하였고, 이에 동의하고 사인을 한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Ahn, 2020).

**기초조사와 오색의 색채 선호도의 설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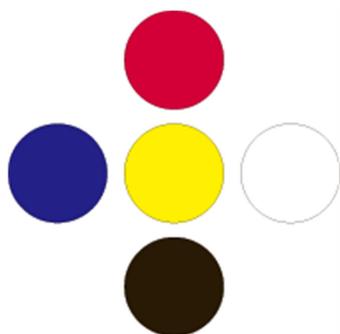
기초자료 설문에서는 연구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목적에 제시한 기초조사를 하였다(설문지는 별첨1에 첨부되었다). 색채 선호 경향을 묻는 질문에는 오색학설의 전통 오방색과 일반적인 색상의 구분을 특별히 하지 않고 일반적 개념의 파랑, 빨강, 노랑, 흰색, 검정인 오색을 기본으로 사용하였다 (Fig. 1). 오색을 제시하여 가장 선호한 색과 비 선호 하는 색을 조사하였다. 설문자의 현재의 건강 상태와 심리 상태를 설문 조사 하였으며, 이러한 오색을 바탕으로 체질을 평가하는 데에 있어 컬러척도를 이용하였다(Ahn, 2020).

**오색의 심리적 의미**

색채는 색깔별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색채치료 의미는 이너가이드센터의 자료와 Luscher(1971)에서 추출하였다 (Table 1).

**중의체질 분류와 판별방법**

중국의 병원에서 사용하는 중의체질 분류와 판별 설문 모형을 사용하였다(Wang, 2005). 과학적인 체질분류를 위해 선택한 ‘중의체질 분류와 판별’의 설문지는 2009년 중국의 국가차원에서 통계학적으로 정립한 체질분류법이다(Table 2). 중의 체질은 9개로 ①양허체질(Yang-Weak constitution : YWC), ②음허체질(ying-Weak con : yWC), ③담습체질(Spleen-Humidity con :



**Fig. 1.** The Five colors (Red, Blue, Yellow, White and Black) for survey.

**Table 1.** Color names and meaning

Colors	Meaning and therapeutic effects
Red	“Force of Will” ex-centric, love, active aggressive, competitive, action, desire, excitement, sexuality
Blue	“Depth of Feeling” passive, concentric, tranquility, calm, tenderness
Yellow	“Spontaneity” ex-centric, active, projective, aspiring, expectancy, exhilaration
White	Purity, sublimity, Symbol of light, Against oppression
Black	Negative state, Nothingness, renunciation, surrender or relinquishment, unconsciousness

**Table 2.** Standard levels of determination of normal and pathology constitutions

Constitution	Points(pt)	Results
Normal con (Harmony)	Total sum pt ≥ 60 points	Normal constitution
	Mean pt of 8 categories < 30 pt	
	All sum pt ≥ 60 pt	Basic match
Mean pt of 8 categories < 40 pt		
Deflection con (pathology con)	Not suitable for conditions	No
	Total sum pt ≥ 40 pt	Deflect con
	Total sum pt 30~39 pt	
Total sum pt < 30 pt	No	

SHC), ④기허체질(Qi-Weak con : QWC), ⑤기울체질(Qi-Gloom Con : QGC), ⑥특이체질(Specific con: SC), ⑦어혈체질(Extravasate con : EC), ⑧습열체질(Humidity-Heat con : HHC), ⑨화평체질(Harmony con : HC)로 분류하였다(Table 3).

**병리체질 판정기준**

병리체질 평가 기준은 Table 2에 제시하였다. 전체 합한(全和)점수가 60점 이상이고 기타 8종 체질의 전회점수 평균이 30점 이내이면 정상체질로 판정한다. 그리고 전회점수가 60점 이상이고 기타8종의 체질 전회점수 평균이 40점 이내이면 정상체질에 근사하다고 판별한다. 만약 이상의 조건에 부합되지 못하고 전회 점수가 40점 이상, 30-39점, 30점 이내이면 각각 편파체질, 편향체질, 비 편향체질이다.

점수 산정의 공식은 (원점수 - 항목수 / 항목수 × 4) × 100로 산정한 점수를 Table 2의 전체 합한 점수를 내어 체질분류를 한다.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는 연구결과를 퍼센트(%)로 도출하였다. 체질 점수 신뢰도를 산정하였다. Cronbach’s coefficient는 평균 0.805이었다. 오색과 오장 및 기초관련 특성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카이스퀘어 검정(Chi-Square Test)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검증을 위한 유의수준(p < .05)을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 594명중에서 여자가 63.3%, 남자가 36.7%이

었다. 연령은 30세 미만이 25.8%, 30-35세 미만이 25.1%, 45세 이상이 23.4%, 35-40세 미만이 14.8%, 40-45세 미만이 10.9%로 순으로 나타나 인적상태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중의 체질의 분포**

서울 시민 대상자 594명의 중의체질 분포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양허체질(YWC)이 165명(27.8%), 음허체질(yWC)이 121명(20.4%), 담습체질(GHC)이 70명(11.8%), 화평체질(HC)이 62명(10.4%), 기허체질(QWC)이 58명(9.8%), 기울체질(QGC)이 44명(7.4%), 특이체질(SC)이 37명(6.2%), 어혈체질(EC)이 19명(3.2%), 습열체질(HHC)이 18명(3.0%)로 순으로 분포되었다(Table 3).

본 연구의 서울시민의 체질분포의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각 체질별 분포에는 차이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중의 체질 검사가 서울 사람들에게는 적합한 검사가 아니라는 결론이다.

한국에서는 현재 이제마(1972)의 사상의학은 음양론에 입각한 사상(四象)을 바탕으로 하여 인간의 성정을 유형화하여 4개의 체질인 소음인, 대음인, 태음인, 태양인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체질을 사상체질 분류 검사도구(QSCC II; Questionnaire for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II)가 개발되어 객관적인 측정과 실험적 증거를 제시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Jung *et al.*, 2012). 또한 8체질(金陽·金陰·水陽·水陰·土陽·土陰·木陽·木陰體質)에 대한 연구가 발전하여 왔다(Kuon, 1965, 1999). 이와 같이 중국과 한국에서는 체질의 분류의 차이가 명확히 나타나고 있어서 본 연구의 기초적 가치가 있다고 본다.

**오색의 분포와 의미**

**분포비율:** 대상자 594명의 오색의 선호도 분포는 Table 4에 제시되었다. 선호도의 순서는 파랑색이 184명(31%), 노랑색이 150명(25.3%), 흰색이 107명(18%), 빨강색이 105명(17.7%), 그리고 검정색이 48명(8%)의 순이었다. 파랑색을 제일 선호하였고, 검정색을 제일 낮게 선호하였다. 오색의 분포는 차이는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Table

3). 중의 체질 검사와 오색의 관련성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 검사에서는 차이가 많이 있어서 연구자료로서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본다.

**선호색의 의미:** 선호 색채의 의미(Table 1)로는 제일 높은 31%의 ‘파랑색 선호그룹’은 ‘느낌의 깊다,’ ‘안전,’ 그리고 ‘조용하고 부드러운 감정’을 나타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두 번째 선호색은 노랑색(25.3%)으로 자발적 이고도 편향적이며 활동적으로 추진하는 경향이 보인다. 제3번째의 흰색(18%)은 순수함과 억압에 대한 저항심을 나타내는 그룹이라 평가한다.

4번째의 빨강색(17.7%)은 강한지력과 능동적인 활동과 사랑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한다. 마지막 5번째는 검정색(8%)은 부정적인 생각과 포기 또는 악과 무의식 상태를 나타내는 색깔로 서울 시민의 적은 수가 부정적인 생각으로 생활을 한다고 본다. 과반수가 희망과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판단한다.

Mun(2019)은 치의과전문대학원생 286명을 대상으로 색채의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학생 중에서 제일 선호하는 색채는 개인적인 본질을 나타내는 색으로 빨강색에 가까운 마젠타를 선택하여 직업에 적합한 온화하고 친절하며 사려 깊은 사람군에 들어 간다고 설명하고 있다. 본인 연구와 다른 색을 내는 것은 집단별로 색채에 대한 선호도가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본다.

**체질별 대상자의 오색선호도**

대상자 594명을 조사한 중의체질유형은 Table 3과 Fig. 1에 제시하였다. 전체 594명 대상자 중에서 양허체질(YWC)은 165명(27.8%)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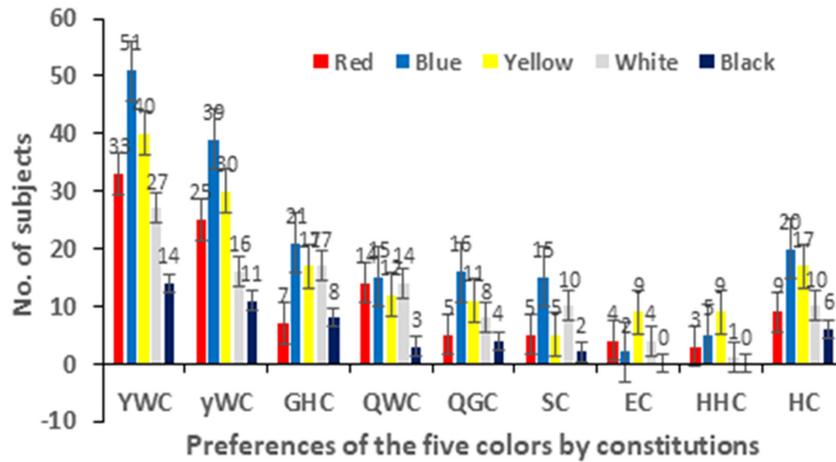
**양허체질** 대상자 165명 중에 파랑색을 선호한 대상자는 51명(30.9%)으로 제일 높았고, 다음이 노랑색(24.3%), 빨강색(20%), 흰색(16.4%), 검정색(8.5%)순이었다. 양허체질 대상자들의 오색의 우선 선호색은 파랑색과 노랑색이라 삶이 긍정적이고 적극성이 있다는 의미로 본다(Table 3 & Fig. 1).

**음허체질** 대상자는 121명이었으며, 파랑색을 선호한 대상자는 39명(32.2%)으로 제일 높았고, 다음이 노랑색(24.8%), 빨

**Table 3.** Preference degree of the five colors by subjects’s constitutions

Colors	No. of subjects preferences the five colors by the constitutions									Total (%)	P*
	YWC	yWC	GHC	QWC	QGC	SC	EC	HHC	HC		
Red	33	25	<b>7</b>	14	5	5	4	3	9	105(17.7)	.309
blue	<b>51</b>	<b>39</b>	<b>21</b>	<b>15</b>	<b>16</b>	<b>15</b>	2	5	<b>20</b>	184(31)	
Yellow	40	30	17	12	11	5	<b>9</b>	<b>9</b>	17	150(25.3)	
White	27	16	17	14	8	10	4	1	10	107(18)	
Black	<b>14</b>	<b>11</b>	8	<b>3</b>	<b>4</b>	<b>2</b>	<b>0</b>	<b>0</b>	<b>6</b>	48(8)	
Sum	165	121	70	58	44	37	19	18	62	594	
Ratio(%)	27.8	20.4	11.8	9.8	7.4	6.2	3.2	3.0	10.4	100.	

p\*:<.05. Abbreviations: ① Yang-Weak constitution: YWC, ② ying-Weak con: yWC, ③ Gall-Humidity con: GHC, ④ Qi-Weak con: QWC, ⑤ Qi-Gloom Con: QGC, ⑥ Specific con: SC, ⑦ Extravasate con: EC, ⑧ Humidity-Heat con: HHC, and ⑨ Harmony con: HC. The blue color letters indicate the highest preference color groups, and the red color letters indicate the lowest preference group.



**Fig. 1.** The preferences of the five colors by the constitutions. Abbreviations: ① Yang- weak constitution: YWC, ② ying-Weak con: yWC, ③ Gall-Humidity con: SHC, ④ Qi-Weak con: QWC, ⑤ Qi-Gloom Con: QGC, ⑥ Specific con: SC, ⑦ Extravasate con: EC, ⑧ Humidity-Heat con: HHC, and ⑨ Harmony con: HC.

강색(20.7%), 흰색(13.2%), 검정색(8.5%)순이었다. 음허체질 대상자들의 오색의 우선 선호색은 파랑색과 노랑색이라 삶이 긍정적이고 적극성이 있다는 의미로 본다(Table 1 & Fig. 2)

**기허체질** 대상자는 58명이었으며, 파랑색을 선호한 대상자는 15명(17.22%)으로 제일 높았고, 다음이 흰색이 14명(24.1%)과 빨강색이 14명(24.1%), 검정색이 3명(5.2%)순이었다. 기허체질 대상자들의 오색의 우선 선호색은 파랑색과 흰색이라 삶이 긍정적이고 적극성이 있다는 의미로 본다(Table 1 & Fig. 1).

**담습체질** 대상자는 70명이었으며, 이 중에서 파랑색을 선호한 대상자는 21명(30%)으로 제일 높았고, 다음이 노랑색과 흰색이 각 17명(24.3%), 검정색이 8명(11.4%), 그리고 빨강색이 7명(10%) 순이었다. 담습체질 대상자들의 오색의 우선 선호도는 양허, 음허 및 기허체질과 같이 우선 선호색은 파랑색과 노랑색이라 삶이 긍정적이고 적극성이 있다는 의미로 본다(Table 1 & Fig. 1).

**습열체질** 대상자는 18명이었으며, 노랑색을 선호한 대상자는 9명(50%)으로 제일 높았고, 다음이 파랑색이 5명(27.8%), 빨강색이 3명(16.7%), 흰색이 1명(5.6%)과 검정색이 0명 순이었다. 습열체질 대상자들의 오색의 우선 선호색은 노랑색과 파랑색이라 삶이 긍정적이고 적극성이 있다는 의미로 본다(Table 1 & Fig. 1).

**어혈체질** 대상자는 19명이었으며, 노랑색을 선호한 대상자는 9명(47.4%)으로 제일 높았고, 다음이 흰색과 빨강색이 각 4명(21%), 파랑색이 2명(10.6%), 검정색이 0명 순이었다. 어혈체질 대상자들은 전체적으로 낮았고, 오색의 우선 선호색은 노랑색과 흰색이라 삶이 긍정적이고 적극성이 있으면서도 순수성을 더 추구하는 그룹으로 판단한다(Table 1 & Fig. 1).

**특이체질** 대상자는 37명이었으며, 파랑색을 선호한 대상자는 15명(40.6%)으로 제일 높았고, 다음이 흰색이 10명, 빨

강색과 노랑색이 각 5명, 검정색이 2명 순이었다. 특이체질 대상자들의 오색 중에 우선 선호색은 파랑색과 흰색이라 삶이 적극적이고 순수성을 요구하는 그룹으로 본다(Table 1 & Fig. 1).

**기울체질** 대상자는 44명이었으며, 파랑색을 선호한 대상자는 16명(36.4%)으로 제일 높았고, 다음이 노랑색이 11명, 흰색이 8명, 빨강색이 5명, 검정색이 4명 순이었다. 기울체질 대상자들의 오색의 우선 선호색은 파랑색과 노랑색이라 삶이 긍정적이고 적극성이 있다는 의미로 본다(Table 1 & Fig. 1).

**화평체질** 대상자는 62명이었으며, 파랑색을 선호한 대상자는 30명(48.4%)으로 제일 높았고, 다음이 노랑색이 17명(27.4%), 흰색이 10명, 빨강색이 9명, 검정색이 6명 순이었다. 화평체질 대상자들의 오색 중에 우선선호색은 파랑색과 노랑색이라 삶이 긍정적이고 적극성이 있다는 의미로 본다(Table 1 & Fig. 1).

서울 시민 594명 중에 중의체질 분포는 9개 체질 중에서 양허체질 대상자 165명(27.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습열체질(18명, 3%)이 제일 낮게 분포되었다. 전체적 9개 체질 중에서 7개 체질(양허, 음허, 담습, 기허, 특이와 화평)의 대상자들이 우선 선호색은 파랑색(184명, 31%)로 제일 높게 나타났고, 검정색(48명, 8%)이 제일 낮았다. 우선 선호색이 파랑색이라 대부분의 서울 시민들이 안정과 부드러운 사회를 원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고 본다. 체질들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안하였으나, 오색 간 및 선택 상태는 차이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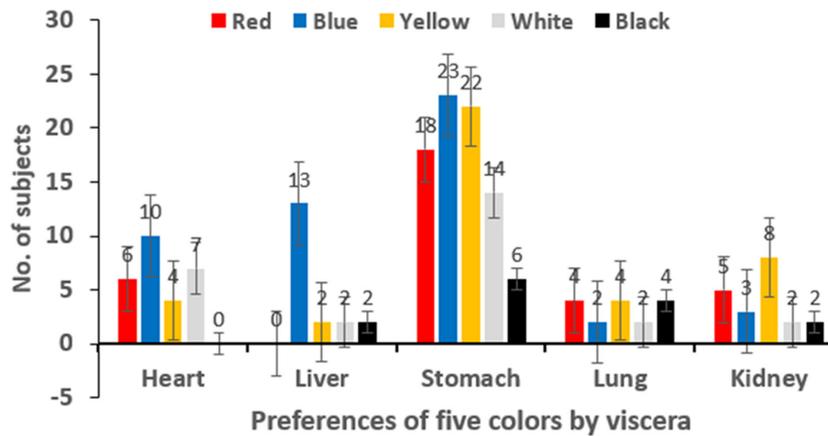
**양허체질 대상자의 오장질환과 오색의 관련성**

**양허체질(yang-weak constitution: YWC)** 대상자의 오장(five viscera)과 오색(five colors)과의 관련성을 Table 4과 Fig. 3에 제시하였다. 본 결과에서는 양허체질 환자는 총 165

**Table 4.** Relations between five colors and five viscera in yang-weak constitutions

Five viscera	No. of subjects by five colors					Total(%)	p*
	Red	Blue	Yellow	White	Black		
Heart	6	10	4	7	0	27(16.4)	.010
Liver	0	13	2	2	2	19(11.5)	
Stomach	18	23	22	14	6	83(50.3)	
Lung	4	2	4	2	4	16(9.7)	
Kidney	5	3	8	2	2	20(12.1)	
Sum	33	51	40	27	14	165	
Ratio(%)	20	30.9	24.2	16.4	8.5	100	

\*p<.05. Five visceral diseases: heart, liver, stomach, lung, and kidney.



**Fig. 3.** Histogram of preferences of the five colors by viscera diseases.

명이었다. 양허체질 대상자의 분포는 위장질환(Stomach)이 83명(50.3%), 심장질환(Heart disease) 대상자는 16.4%, 신장질환(Kidney disease) 대상자는 12.1%, 간장질환(Liver diseases) 대상자는 11.5% 그리고 폐질환(Lung diseases) 대상자는 9.7% 순으로 나타났다(Table 4). 질환별 오색선호도는 다음과 같다(Fig. 3).

**심장질환자**는 165명 중에 27명(16.4%)이었으며, 오색선호도는 파랑>흰색>빨강>노랑 순위이었다.

**간장질환자**는 19명(11.5%)이었으며, 오색선호도는 파랑(13명: 68.42%)> 노랑=흰색=검정 순위이었다. 대부분 파랑색을 선호하는 특징이 있었다.

**위장질환자**는 83명(50.3%)이었으며, 오색선호도는 파랑색(23명)>노랑색(22명)> 빨강>흰색>검정색 순위이었다.

**폐질환자**는 16명(9.7%)이었으며, 오색선호도는 빨강=노랑=검정>파랑=흰색 순위이었다. 3색이 동일한 숫자로 나타나서 특이성이 있었다.

**신장질환자**는 20명(12.1%)이었으며, 노랑색(8명: 40%)> 빨강>파랑> 흰색=검정색 순위이었다.

결론적으로 보면 양허체질의 오장질환 대상자는 위장질환자의 분포(50.3%)가 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 우선 선호색은 전체적으로는 파랑색(30.9%)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색깔별로도 제일 높게 나타났다. 선호색의 희망은 안

정과 평화라 평가하고 싶다(Table 1).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었다(p<.01). 오장질환 별로 오색의 선호도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라 평가한다.

## 결론

본 연구는 서울시민 594명을 대상으로 중의체질표 설문지로 검사하여 체질유형 분포를 탐색하고, 체질별로 오색(빨강색, 파랑색, 노랑색, 흰색 그리고 검정색)의 선호도를 조사하여 서울 시민들에게 적합한 검사인지 그리고 체질에 따른 오색의 선호도가 타당성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연구방법은 중의체질 설문지를 이용하였고 일반오색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1) 체질유형 분포에서는 양허체질(31.4%), 음허체질(23.8%), 담습열(11.8%), 화평(10.4%), 기허체질(9.8%), 기울체질(7.4%), 특이체질(6.2%), 어혈체질(3.2%) 순으로 나타났다.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이는 중의체질 검사가 서울 시민에 적합하지 않다는 결과이기도 하다.

2) 오색선호도 순서는 파랑색이 184명(31%), 노랑색이 150명(25.3%), 흰색이 107명(18%), 빨강색이 105명(17.7%), 그리고 검정색이 48명(8%)의 순이었다. 파랑색을 제일 선호하였고, 검정색을 제일 낮았다. 파랑색을 선호하여 안정과 평

화를 추구하는 경향이였다. 오색의 분포는 차이는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는 체질별 오색선호 사이에는 유연성이 적다는 결과를 이다.

3) 양허체질 대상자의 오장질환은 위장질환자의 분포(50.3%)가 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 선호색은 전체적으로는 파랑색(30.9%)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었다( $p < .01$ ). 오장질환 별로 오색의 선호도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라 평가한다.

결론적으로 중의체질 분포조사표로 조사한 서울 시민의 체질을 분포는 9개로 분류되었으며, 양허체질 대상자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제일 낮은 것은 습열체질이였다. 또한 체질별로 오색의 선호도에 차이는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없었다. 파랑색 선호도가 전체적으로 높아서 안정과 평화를 기대하는 경향 있었다. 이는 중의체질설문지가 서울시민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는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체질별 결과는 이 분야의 연구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고 판단

## References

- Ahn, J.H. and J.D. Kim. 2013. Theoretical consideration on color therapy. *J. Naturopathy* 2(1): 74-82.
- Ahn, 2020. The relationship between health and mind-Body State according to five colors preference. *J. Naturopathy* 9(1): 1-12.
- Babbitt, E.D. 1878. Principles of light and color. Babbitt & Co., N.Y.
- Birren, F. 1973. Color preference as a clue to personality. *Art Psychoth.* 1(1): 13-16. doi:10.1016/0090-9092(73)90005-7
- Braun, C.M. and J.L. Bonta. 1979. Cross-cultural validity, reliability, and stimulus characteristics of the Luscher color test. *J. Personal. Assess.* 43(5): 459-460. doi:10.1207/s15327752jpa4305\_3
- Chun, H.J. 2007. Preference of floral form and color in accordance with blood types. *J. Kor. Floral Art Res. Ass.* 10(1): 134-186.
- Finsen, N.R. 1903. The nobel prize in physiology or medicine 1903 was awarded for recognition of his contribution to the treatment of diseases, especially *Lupus vulgaris*, with concentrated light radiation, whereby he has opened a new avenue for medical science. Nobelprize.org. p.1.
- Gage, J. (Park, S.J. & H.J. Han, Translated). 2011. Color and meaning. Sahoepyongron Academy, Seoul. p13, pp.126-127.
- Gardner, J. 2006. Vibrational healing through the Chakras: With light, color, sound, crystals, and aromatherapy. Ten Speed Press (Penguin Random House), CA. p.5.
- Ghadiali, D.P. 1996. Let there be light. Malaga, Dinshah Health Society, NY.
- Granit, R., H. K. Hartline, and G. Wald. 1967. Win Nobel prize in medicine or physiology; the primary physiological and chemical visual processes in the eye. *Chem. Eng. News Arch.* 45(46): 23. doi:10.1021/cen-v045n046.p023.
- Hong, I. 2011.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by smoking, drinking, exercise, obesity and sociodemographic variables using EQ-5D. Sahmyook University Master's thesis. p.9.
- Itten, J. 1970. The elements of color. John Wiley & Sons Inc., NY. p.30.
- Jang, S.C. 2000. Picture therapy for office workers. Book House Pub., Seoul. p.5.
- Jung, S.A., S.H. Kim, J.S. Yoo and S.G. Lee. 2012. Study about the psychological factors of Sasang constitution classified by QSCC II. *J. Orient. Neuropsych* 23(1): 83-95. doi:10.7231/JON.2012.23.1.083
- Kim, H.W. 2001. Review of color psychology and color therapy. *Architect. Res.* 45(6): 45-55.
- Kim, J.H. 2002. Principle of color, Sigong Pub., Seoul. pp.156-161.
- Kim, M.K. 2005. Practical color utilization, Yeorim Pub., Seoul. p.24.
- Kho, J.H. 2009. The comparative study of constitution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and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Master's thesis.
- Korea Color Research Institute. 2007. Color1. Color Bank Communication, Seoul. p.2.
- Kuon, D.W. 1965. A study of constitution-acupuncture. *J. Internat. Cong. Acup. & Moxib.* Tokyo. 10(1): 149-167.
- Kuon D.W. 1999. Eight-constitutio medicine: An over view, IMKS Occasional papers No. 2 Inst. Modern Kor. Studies. Yonsei Univ., Press. 12: 601-623.
- Kwak, B.W. 2010. A Study about color consciousness about Korean traditional five colors in art therapy history and its Therapeutic applicability. Yeungnam University Master's thesis. p.15.
- Lee, J.M. 1972. Dongeuisusebowon(東醫壽世保元), Shinilbooks Publ., Seoul. p.10.
- Lee, Y.C. 2009. Naturopathy and quantum medicine(II). Art House Pub., Seoul. p.4.
- Luscher, M. 1971. The Luscher color test. Translated and edited by Ian Scott. Random House, New York.
- Lüscher, M. 1969. The Lüscher color test. Ed. Ian Scott. Random House, New York.
- Moon, Y.J. 2019. A study on the psychological traits of dental students based on color preference. Jonnam University Master's thesis. p.2.
- Newton, I. 1704. Opticks(a Treatise of the reflections, refractions, inflections, and colours of light), Royal Society, London.
- Park, K.J. 2012. Development of skin adhesive color light therapy device. Chonbuk National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p.7.
- Rendel, P. 1979. Introduction to the Chakras(paths and inner power). Aquarian Press, Great Britain. p.10.
- Ryu, J.H. 2008. A fundamental study on chromo therapy practice to skin care. Tongmyong University Master's thesis. p.4.

Scarmiglioni, G.A. 1601. Vidi Antonii Scarmilionii De coloribus: libri duo, Egenolphus.  
 Shin, S.U., S.S. Kim and H.D. Shin. 2000. Review of color therapy. J. Kor. Med. Rehab. 10(2): 140-142.  
 Song, I.B. 2000. The confucian view of human being of Lee Jema and his spirits to apply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J. Sasang Consc. Med. 12(1): 1-9.  
 Verner-Bonds, L. 1993. Color healing? Random House. p.87.  
 Verner-Bonds, L. 2008. Colors healing mind and body. Kukje Pub., Seoul. p.10.  
 Wang, Q. 2005. Chinese medicine constitution science. People's Health Pub., Beijing. pp.42-43, 172-175.  
 Wills, P. 1997, Colour therapy: The use of colour for health and healing (Health essentials series). Element Press. p.35.

Appendix 1. Chinese Constitutional Classification and Evaluation Items

NO.	증상 설문 내용 Survey Content	평가 항목 및 점수				
		전혀	가끔	보통	자주	항상
		1	2	3	4	5
1	손발이 차가운가요?					
2	상복부, 등, 허리, 무릎부위가 시리나요?					
3	타인에 비해 추위를 타거나 옷을 많이 껴입나요?					
4	일반인보다 찬 기운을 싫어하나요? (겨울의 한기, 여름의 에어컨, 선풍기 등)					
5	다른 사람보다 감기에 잘 걸리나요?					
6	찬 음식을 먹으면 몸이 불편하거나 혹은 찬 음식을 싫어하나요?					
7	추운 곳에 있거나 찬 음식을 먹으면 쉽게 설사를 하나요?					
8	손바닥과 발바닥이 뜨거운가요?					
9	몸이나 얼굴에 발열감이 있나요?					
10	피부나 입술이 건조하신가요?					
11	타인에 비해 입술이 붉은 편인가요?					
12	변비가 자주 생기거나 대변이 건조하나요?					
13	광대뼈 주위가 자주 붉어지거나 붉은 편인가요?					
14	눈이 뻑뻑하고 건조한 느낌이 있나요?					
15	입이 마르고 목이 건조하며 항상 갈증을 느끼나요?					
16	쉽게 피로해지나요?					
17	쉽게 숨이 차나요?					
18	쉽게 가슴이 두근거리시나요?					
19	머리가 자주 어지럽거나 일어날 때 어지럽나요?					
20	다른 사람에 비해 쉽게 감기에 걸리나요?					
21	조용한 것을 좋아하며, 말하기를 싫어하나요?					
22	목소리가 낮고 무기력한가요?					
23	적은 활동량에도 식은땀이 쉽게 나나요?					
24	가슴이나 복부가 답답하고 더부룩하나요?					
25	목이 항상 묵직하고 개운치 않는 느낌인가요?					
26	복부가 살이 많고 말랑말랑합니까?					

N0.	증상 설문 내용 Survey Content	평가 항목 및 점수				
		전혀	가끔	보통	자주	항상
		1	2	3	4	5
27	이마에 유분(기름기)이 많나요?					
28	윗 눈꺼풀이 타인에 비해 두툼한 편인가요?					
29	입안이 끈적거리나요?					
30	평소 가래가 많은가요? 특히 인후부가 항상 가래가 걸린듯한 느낌이 있나요?					
31	혀에 백태가 심하게 끼거나 많이 낀다는 느낌이 있나요?					
32	얼굴이나 코에 기름기 혹은 번들거림이 있나요?					
33	얼굴에 여드름이나 뽀루지가 잘 나나요?					
34	입이 쓰거나 입안에 이상한 냄새가 나나요?					
35	대변이 끈적이며 개운치 않거나 배변 후 잔변감이 있나요?					
36	배뇨감이 뜨겁거나 소변색이 진한가요?					
37	질 분비물이 노란색인가요?(여성)					
38	음낭부위가 습한가요?(남성)					
39	피부에 이유 없는 멍이나 청자색 반점이 생겼나요?					
40	광대뼈 주위에 싹틔줄이 많이 보이나요?					
41	몸에 통증을 느끼시나요?					
42	얼굴색이 어둡거나 쉽게 기미가 끼나요?					
43	눈 주변에 다크 서클이 생기나요?					
44	건망증이 있나요?					
45	입술이 검은 편입니까?					
46	감기에 걸리지 않아도 재채기를 하나요?					
47	감기에 걸리지 않아도 코막힘이나 콧물이 있나요?					
48	계절, 온도, 특이한 냄새 등으로 기침이나 천식이 유발되나요?					
49	알레르기가 있으신가요?					
50	피부에 두드러기가 생기나요?					
51	보라색 반점의 피부 과민반응이 있었나요?					
52	피부를 손톱으로 긁으면 바로 붉어지면서 자국이 생기나요?					
53	마음이 답답하고 울적하며 기분이 처지나요?					
54	정신적 긴장을 느끼며, 초초하고 불안하나요?					
55	자주 애수에 잠기고 근심 걱정이 많으며 감정이 연약하나요?					
56	쉽게 겁을 먹거나 잘 놀라나요?					
57	옆구리 혹은 유방 부위가 부어 팽창하듯 아프나요?					
58	아무런 이유 없이 한숨을 쉬나요?					
59	인후부에 토하려 해도 토해지지 않고 삼키려 해도 삼켜지지 않는 이물감이 있나요?					
60	기력이 넘치시나요?					
61	쉽게 피로해 지나요? *					
62	말소리가 낮고 미약하나요? *					
63	마음이 답답하고 울적하며 기분이 처지나요? *					
64	일반인보다 찬 기운을 싫어하나요? *					
65	자연적인 외부환경이나 사회 환경의 변화에 잘 적응하나요?					
66	불면증이 있나요?					
67	건망증이 있나요? *					